



풀무원
매출 3조 달성
글로벌사업 확장
L1



Life

정의선 회장
체코 정부
외교훈장 받아
L4



경제적 어려움이 학업 막지 않도록... 반세기 이어온 숭고한 뜻

종근당고촌재단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동안 1만여명의 어려운 학생들을 꾸준히 지원해 온 장학재단이다.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효시를 이루는 양영재단과 경방육영회에 이어 기업 재단으로는 설립 순위 10위 내에 꼽힐 만큼 깊은 역사를 가졌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렵게 모은 사재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던 창업주 고(故) 고촌(高村) 이종근 회장의 굳건한 신념과,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장학사업으로 차별성을 꾀하고자 했던 이장한 회장의 나눔경영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지난 1976년 처음 장학사업을 시작한 이후 52년간, 1만522명에게 734억 원의 장학금 및 학술비 등을 지원해 왔으며 연간 25억원 규모의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상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받는 혜택을 고려하면 연간 40억원 이상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셈이다.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종근당고촌재단

◆어려운 학생 위해 사재를 털다

반세기의 시작은 이종근 회장이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종근당장학재단'이었다.

재단은 설립 첫 해 16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시작으로 1976년 '이종근 기금'을 통해 종근당 주식을 기증받으며 본격적인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1977년 종근당고촌재단의 장학생은 112명으로 설립 4년 만에 연간 100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견 장학재단으로 성장했다.

1984년에는 이종근 회장이 개인 재산인 지상 5층 규모의 영등포 빌딩과 충청로에 건축한 종근당 빌딩에서 얻은 임대수입을 재단 기금으로 기증했고, 1993년 이종근 회장 영면 이후에는 토지와 건물, 주식 등 약 200억원에 달하는 사재를 유증받아 기본 자산을 확대하며 장학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갔다.

장학재단의 시작은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종근당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사회공헌에 대한 설립자의 각별한 철학으로 그 대상이 점차 사회 취약계층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1977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의 취약 자녀 중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이 전체의 1할도 미치지 못하자, 당시 내무부는 기업 재단에 이들 자녀의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종근당 장학재단(現 종근당고촌재단)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정관을 개정하고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자녀 고등학생을 추천받아 장학금을 지급했다.

◆창업주 숭고한 뜻 계승한 이장한 회장

1993년 이종근 회장이 작고하자 이장한 회장은 지난 30년간 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계승해 재단의 장학사업을 이어왔다. 이장한 회장은 재단의 재산증대나 목적사업 발굴 등 모든 면에서 재단의 품격을 한 단계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장한 회장이 한국 제약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기림과 동시에 결핵 퇴치 활동을 후원할 목적으로 국제적인 시상 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2005년 5월 3일 고촌상 제정이 승인됐다. 당시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있던 고 이종욱 박사와 이장한 회장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고촌상은 WHO 산하(현 유엔연구사업소 산하)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Stop TB Partnership) 주관으로 매년 주제를 선정하고, 전 세계 후보자를 모집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지난 2023년 미국 뉴욕의 UN 본부에서 열린 '제17회 고촌상 시상식'에서 수상자인 STOP TB 파트너십 루치카 디티우(Lucica Ditiu) 사무국장, 고촌상 선정위원 멜 스피겔만(Mel Spigelman), 우크라이나 보건부 공공 의료센터 야나 테를리바(Yana Terleeva) 박사, 종근당고촌재단 김두현 이사장, 우크라이나 보건부 공공 의료센터 올가 그보즈데츠카(Olga Gvozdetzcka) 박사(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종근당고촌재단

1976년, 이종근 회장 사재 출연해 장학재단 설립 52년간 1만522명에게 734억 장학금·학술비 지원 결핵 퇴치 기여 후원 '고촌상', 국제적 위상 높여

국내 장학사업, 해외로 확대... 글로벌 인재 양성 지방출신 대학생 무상 주거 지원 '고촌학사' 마련 학술·연구 분야 지원, 장학생 재능 기부 '선순환'

다. 고촌상은 종근당고촌재단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장한 회장은 이에 지지 않고 2013년 국내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장학 사업을 해외로 확대하며 재단의 글로벌 행보를 이어갔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학업을 지원하는 재단의 장학 사업 취지에 맞게 저소득 개발도상국가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에서 시작된 글로벌 장학 사업은 르완다, 인도네시아까지 확대되어 지난 11년간 46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민간장학재단 최초, 무상 주거 지원

종근당고촌재단은 2011년부터 무상기숙사 지원 사업을 시작하며, 타 장학재단과 차별화된 행보를 시작했다. 주거 문제를 겪는 대학생을 위해 민간장학재단 최초의 주거 지원 시설인 종근당고촌학사가 마련된 것이다. 이 역시 이장한 회장이 처음으로 제안해 시작된 일이었다.



▲고촌상 메달

서울 소재 학교에 진학한 지방 출신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충이 등록금과 주거 문제다.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단은 공과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졸업 때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 서울 동교동 1호관을 시작으로 2012년 휘경동, 2014년 중곡동, 2020년 영등포동에 2, 3, 4호관을 순차적으로 개관했다. 총 수용 인원은 314명 규모이다. 특히 4호관은 100명 이상의 여학생 수용이 가능하고, 치안에 취약한 여학생을 위해 최신 보안경비 시설을 갖추고 있다.

고촌학사는 단순한 학자금 지원뿐 아니라 대학생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을 헤아리고,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촌학사에 거주중인 장학생들은 소재지역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등의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다. 무상 주거

의 수혜자가 나눔정신에 동참하면서, 새로운 주거복지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종근당고촌재단은 고촌학사 운영을 통해 대학생 주거복지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주거복지 문화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종합대상, 2020년 국토교통부 주최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에서 '주거복지 유공자 국무총리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이 무상 주거 지원 사업은, 일반적으로 장학재단이 성적 우수 인재 중심의 장학사업을 펼치는 것과 달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고촌의 의지는 설립 52년에 이른 지금까지 이어지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대물림하고 있다.

◆차별화된 사업으로 품위를 높인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외에 학술 및 연구지원 분야에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해왔다.

한국 제약산업의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이종근 회장의 약업보국 정신과 이장한 회장의 학술진흥을 통한 사회공헌의지가 여러 학술기관의 기초연구 지원사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재미 한인과학자와 국내 과학자로 구성된 바이오의학연구회(SBR) 학술상운영, 재외동포 의료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비 지원, 예방백신 연구지원을 위한 국제백신연구소 후원 등 1985년부터 오늘날까지 103단체 112명에게 총 37억원을 지원하며 사회적,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 국내외 단체 및 연구자를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종근당고촌재단장학생들은 배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는 교육 재능 기부(학습 진도, 진로상담)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재단은 서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동대문구와 '저소득 가구 자녀 멘토링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재단 장학생을 멘토로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방식으로 체계적인 멘토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종근당고촌재단 김두현 이사장은 "지난 50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인재들이 없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평생을 옥영 사업에 헌신하신 고촌 이종근 회장님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왔다"며 "앞으로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KSPPO 스포츠가치센터, 진주시와 '건강올리고' 업무협약
▲배지환, MLB 시범경기 2경기 연속 침묵...타율 0.444 /사진 뉴스시스

▲베트남, 이운재·이정수 코치 품었다...김상식호 전격 합류
▲호날두, 개인 통산 927호골 폭발...알나스르, ACLE 8강 진출 성공

▲'브라질 축구 스타' 네이마르, 또 부상 이슈 제기
▲피겨 차준환 "IOC 선수위원 면접, 유의미한 과정"